朝鮮日報
夕刊
二十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崔益翰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 月刊 (一圓行)
『女性』 同 (上同)
『少年』 同 (上同)

社說

外地增稅案의 修正

一

朝鮮을 爲始하야 臺灣樺太等 外地에서도 日本內地와 한께 增稅案을 決定하얏섯스나 今番日本內地의 增稅率이 多少 修正됨에 딸아서 外地의 增稅率도 다시 修正을 뵈케 되얏는지라 拓務 大藏의 兩當局에서는 方今 折衷中인즉 近間 正式決定을 보게 되리라고 한다。그런데 위선 지금까지의 折衷結果로는 第一種과 第三種所得에 잇서서 朝鮮 一割五分의 增徵을 一割二分五厘로 臺灣、樺太、一割五分의 增徵을 一割二分五厘로하고 入場料稅에 잇서서 五十錢을 고치어 三十五錢을 免稅點으로 하고 物品稅에 잇서서 五千圓을 고치어 四千圓程度의 것以上으로부터 適用하고 砂糖消費稅에 잇서서 第一種이나 第二種이나 다 原案보담 十錢을 引上키로한 모양이매 結局 原案에比하야 所得稅는 第一種 第三種이 다한께 減下되엿지만은 그와反對로 入場料稅 物品稅 砂糖稅等은 도리혀 增加되고 잇는셈이다。

二

勿論 今番 增稅案의 內容은 오직 上記 네가지에 限치안코 그以外에도 通行稅를 爲始하야 臨時利得稅 法人資本稅 利益配當稅 取引所稅 臨時利得稅 公債及私債利子稅等에 미치거니와 그러한 모든 稅는 大槪 原案 그대로 結定된것이다。要컨댄第一種 第三種의 所得稅의 增稅率의低下를 도모하는 同時에그로因한 減收를 入場料稅 物品稅 砂糖消費稅等의 若干增徵으로 補充하려는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解釋된다。그러나 所得稅의 增稅率이 그만큼 低下된데 딸아서도 歲入의 相當한 減收를 免치 못할것이니 入場料稅等의 그쯤 增徵으로써 그 減收의 全部가能히 補充될까는 자못 疑問이다。當局에서도 勿論 이 點을 모르지 안켓만은 이미 各外地豫算이 成立되야 잇서서 一般會計의 歲入金도 結定을 본 터어므로 그 것은 不得已 今後 自然增收에 依하야 補充하는수 밧게 업시 된 形便이다。

三

우리는 增稅에 對하야 屢次 우리의 見解를 表明하야 왓거니와 現下 非常한 時局을 對處하야 나가기爲하야는 增稅도 實로 不可避의 事情이다。勿論 增稅로因하야 一般民衆의 負擔이 直接 커지고 또는 物價가 노파저서 間接의 苦難도 업든 안켓지만은 그쯤의 負擔과 苦難은 甘受할수밧게업는 일이다 그러나 爲政當局者는 이러한非常한 時局에 當할수록 더욱더一般民衆의 生活을 洞察하야 各階級의 負擔을 어대까지 公平하게要求치 안하면 안될것이니 今番 支那事變特別稅中 相續稅나 個人財産稅가튼것이 빠지고 第一種 第三種 所得稅의 減收를 도모한 일이어다가 다시 第三種所得稅 物品稅 砂糖消費稅等의 大衆課稅인 物品稅나 砂糖消費稅가튼 것의 增徵으로 補充한다는것도 遺憾이다。本來로 말할진대 産業이나 勤勞에 對한課稅인 第一種 第三種의 所得稅보다도 相續稅나 個人財産稅에서 今番事變의 財源을 求하여야할것이요 또 大衆課稅인 物品稅나 砂糖消費稅보다는 第一種이나 第二種의 所得稅에 더만흔 增徵을 行하여야 할 것이다。勿論 事變費全額에 對하야 增稅額은 얼마 못 되는터로 거기서 多額公債를 發行할것은 決定못된다。그러나 負擔의 均衡으로 보아서는 어찌 消費稅增徵을 말하지 아니할수 잇는가。

臨城을 攻略한 部隊 津浦線韓莊을 占領
星子軍官學校도 空爆

【兗州十九日發同盟】我〇〇部隊는 十九日午後一時 津浦線의 要衝韓莊을 占領하고 城頭노괴 日章旗를 飜揚하엿다 徐州에까지는 十二里박게 안남엇다한다

【兗州十九日發同盟】臨城攻略後即時追擊戰에옴긴〇〇部隊는 休息할사이도업시 急追擊戰을하야 十九日午後一時마침내 大運河北方約二十二粁의 地點에進出하야 〇〇部隊協力下에 韓莊(臨城南方二十五粁)의 敵에對하야 猛射를퍼부어 敵을山野에올리여 機關銃火를吐하는中을 我部隊는 勇猛果敢하게突進하야 敵에 肉薄中이다 運河南方에는 約一萬의敵이잇서 我方의 猛攻에動搖의 빗을보이고잇다

【上海十九日發同盟】我海軍航空隊는 十九日때마침 惡天候임에도不拘하고 廬山의 東方抗日敎育의 大本山인 星子軍官學校를 爆擊하야 이를[illegible]시켯다

四川廣西軍一部掃蕩

【濟南二十日發同盟】我軍의疾風과如한 進擊은 津浦線의 四川軍及廣西軍의一部는 거이省外에 一掃되게되엿다 一方〇〇部隊及〇〇部隊等의 突擊으로부터의 猛攻에必死的抵抗을하고잇는 沂州附近의敵도 거이壓迫되여 同方面一帶에進出中인 張自忠軍三個師는 完全히左側을 衝擊되여 津浦線東方山地에 逃亡하엿다 一部四川軍殘敵과함께 山東省南部省境에쫏기여바야흐로 稍蛻卑軍에依하야 刻刻으로 包圍殲滅의運命에잇다

租界警察權에關한 日本側權限擴大

【上海十九日發同盟】岡本總領事는 今年一月四日 上海共同租界 工部局 最高當局에 對하야 治安維持의 目的으로부터

一、日本人警察官의 地位向上及人員增加
二、警察以外의 中樞機關에서도 行政部門의 重要地位를日本人에與할것
三、各行政部門에 日本人을參加시킬것

의 要求를하얏는바 工部局側에서도 上海의新情勢及 日本側의 現地位에 鑑하야 慎重研究를거듭하고 또上海領事團會議에 거려 協議한結果 겨우回答을發하기로 決定하고 今日我總領事館에서 右要求에는大體로 同意할것의 正式回答을寄하여왓다 回答의內容은 細部에亘하야 詳細히 記述하엿는데 그要點은

一、日本人警察官의待遇改善增員
一、日本人特別副總監을 新設하고 同副總監은 總監에對하야 一般的政策問題에對하야 意見을開陳할수잇슬것
一、警察行政의機會均等

等인데我方은 右回答을 參考로서 더욱一般的研究를 加할터이다 그러나 本回答에依하야 從來何如튼差別待遇를 受하여오든 日本側의 租界警察權에關한權限은 顯著히擴大强化되여 日本軍上海占領後의新事態에 卽應할 日本側對工部局의 新關係가 發生하게되엿셔 어오 또 日本側이 永年希望하든바의 工部局行政의大半을 占하는 警察行政에 實質的、地位向上을 獲得할수잇는 段階에 서게되엿다

獨、체코國境保障代身 蘇체條約廢棄要求
獨逸對체코態度注視

【프라하十九日發同盟】獨墺合邦後의 獨逸이 今後 체코에對하야 如何한 態度를 取할지 極히 注目되고잇는데 프라하外交界의一部에 히틀러總統은 체코國境을 保障하는代身 체코政府에對하야 蘇聯과의 相互援助條約廢棄를 要求하엿다는風說이傳하야 一센세이숀을 惹起하엿다

中歐新情勢에處해 체코擧國內閣組織

【프라하十九日發同盟】체코슬로바키아首相 호자博士는 獨墺合邦에伴한 中歐의 新情勢에 對處키爲하야 內閣强化를 目標로 擧國一致內閣組織을 計畫하고잇든바 反對黨의 國民統一黨으로부터 閣僚를 마지하게되여 十九日 大統領令으로써 同黨領袖에크氏를 無任所相으로 任命하엿다 國民統一黨은 世界大戰終了以來 極左極右를 除한中間派中 唯一의 反對黨으로서對立하여온것으로 現在下院에議席十一을 가지고잇다

米國政府는 獨墺合邦承認?

【華府十九日發同盟】헐國務長官은 十九日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서 『米國政府는 獨墺合邦을承認할意向이잇느냐』는 質問에對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米國政府의 外交政策의基調는 十七日나의聲明·프레스俱樂部에서行한 余의演說에 다하엿다고 思한다 問題의 墺國事件보다도 其他同樣의 事件이 米國政府의 重大關心事이다 平和維持의 原則을 危殆케할 衝動을 防止하지안코는 아니된다 右에關하야 消息通은 米國政府의 獨墺合邦正式承認은 只今은 업슬것이나 아마事實上 承認할것이라고보인다 現在國務省當局은 獨墺合邦에 對하야서의 技術的措置를 考究中이라고 言明하야 米國에잇는 墺國代表를獨逸大使館員으로서 取扱하야 에依하야 事實上의承認을 行할 意向이라 解釋된다

支那六全大會에 廣東側五項提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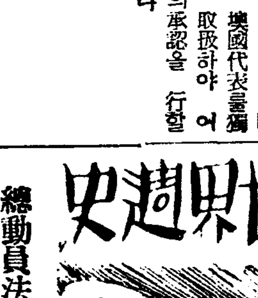
【香港十九日發同盟】三月十九日부터漢口에서 開催키로 決定된 第六期國民黨全國代表大會에 廣東側으로부터 提出된 提案中主되는者는 左의 五項目이라하는데 果然余漢謀가 그를大會에提出할지 疑問이나 廣東內部에는 相當히 共産勢力이 進出하야 그對策에熱中한 狀態가 窺知되여 注目을惹起하엿다

一、最後까지抗戰持續의決議案
二、共産黨員中에서보다는 中央執行委員及 內閣員을採用하라는提案
三、朱德을 軍事委員會副委員長에任命案
四、社會主義者靑年黨員中으로부터 政府中央委員을採用하라는提案
五、現在의 廣東省軍政要人은모두異動시키지말라는提案

吳、余提携하야 蔣派會追出工作

【香港十九日發同盟】從來廣東省

世界週史



總動員法衆院通過

今第七十三議會에서 最大重要法案인 國家總動員法案은 本法이 너무廣汎한 委任命令을 行政機關에 맷긴다는 點으로 憲法의 違反되고 또人民의 自由權利를 制限하는 맛쇼이데올로기 에서 出發한것이 아니냐하야 議會內外에잇서 難航을 繼續하여오더니 今十六日에 衆議院本會議에 提出 無修正全員一致로 마치내 衆議會通過하고 貴族院에 遍附하엿다。

獨墺合邦

슈슈닉首相이 墺太利獨立에關하야 國民投票를 十三日에 擧行한다는 問題에 發端한 獨墺合邦問題는 獨逸의 强硬態度로 마치내 나치스派가 政權을 掌握케되자 十三日에 中外에 獨墺合邦을 宣言하는同時에 墺太利는 獨逸共和國의 一州가 되고마랏다。

리波關係爆發形勢

리투아니아와 波蘭國境에서 監視隊사이에 이러난 衝突事件은 마치내 波蘭政府의 最後通牒으로되여 萬若 리투아니아가 이를 拒否하는 境遇에는 波蘭軍은 리투아니아에 進軍하리라하야 이미 國境에 軍隊를 集結시켜 一觸即發의 形勢에 이르게되엿다。

獨逸에 메멜奪還說

리波國境紛爭問題로 리波關係는 마치내 最惡의 境遇에이르게되엿는데 萬若波蘭軍이 리투아니아에 進軍하는 境遇에는 獨逸國防軍은 이에呼應하야 리투아니아領메멜地方으로 進軍하야 메멜을 奪還할것이라는 企圖를 가젓다고 나치스代辯者는 말하엿다한다。

比島獨立無期延期?

比律賓 高等辦務官署·맥넛트氏는 十四日『米國은 比律賓獨立을 無期延期할것이오 比律賓自治를 承認하더라도 그主權은 어데까지던지 把握하여야 不可하다 比律賓의 獨立을 承認함은 米國의 東洋問題에關한發言權을 喪失함을 意味한다』고放送하야 比律賓界에 一大衝動을 이르키엿다。

蘇、國際會議提唱

蘇聯外務人民委員 리트비노프氏는 十七日外人記者團을 引見하고 蘇聯은 獨墺合邦과 체코의危機에 依하야 釀成된國際危局에 際하야 侵略的行爲阻止의 處置를 講究키爲하야 國際會議를 召集할것이라고 發明하고 萬若 各國이 共同行爲를 取하지 못할 境遇에는 蘇聯은 單獨으로 行動을 決行하겟다고 한다 但 獨、伊、日은 招請치안헛다한다。

佛블룸內閣出現

『財政全權委任法』으로 마친내 總辭職을 하고마른 쇼땅內閣의 뒤를 바더 組閣에 出馬한 社會黨首領 블룸氏는 十二日午後 組閣이 成功하야 社會黨、急進社會黨을 抱擁한 블룸第二次人民戰線內閣이 成立되엿다。

英政府危機直面

체임벌린英內閣은 積極外交를標榜하는 少壯閣僚와 自重論的態度를 主張하는 長老閣僚間에 意見對立을 招來하야 그結果 英政府는 未曾有의 危機에 直面하엿다한다。

英伊新協定成立

英政府는 伊國政府와의 間에 羅馬에서 地中海問題에 關하야 政治的會談을 進行하는一方 倫敦에서 兩國通商關係改善에 關한 交涉을 行하고잇든바 二個의 新通商協定을 締結하엿다한다。

獨國會廢止

히틀러氏는 維也納으로부터 伯林에 歸還한以來 各閣僚及國防軍首腦部를 招致코 國會에臨할 對策을 協議한結果 獨逸은 國會를 廢止하고 伊太利에본바더 大評議會를創設한다고한다。

『리』波國要求受諾으로 波·리危機遂解消
十八年만으로外交關係再開
波蘭國交回復을聲明

【카나우스十九日發同盟】리투아니아政府는 外交關係再開에 關한 波蘭政府의 最後通牒에 對한態度를 協議한 結果 十九日午後의 最後通牒期限前 마침내 波蘭政府의 要求를 受諾하기로 決定하고 同日午前十一時리투아니아政府의 에스토니아 外務省에서 에스토니아 駐剳리투아니아公使를通하야 波蘭公使에 受諾의 回答을 手交하엿다 國境紛爭을 契機로한 리、波兩國間의 危機는 茲에 解消되여 兩國은 十八年만으로 正常外交關係를 再開하기로 되엿다 또 리투아니아外相 로즈라이치스氏는 午後議會에서 波蘭政府의 要求에 應하지아니치못하게된 經緯를 說明할터이다

【알소十九日發同盟】리투아니아政府가 波蘭의 最後通牒을受諾한結果 一時危機를 豫想든 리、波國境紛爭事件은 圓滿解決을보게되엿는데 波蘭政府는 十九日正午 右에關하야 左와如한 形式으로 發表하엿다

波蘭及리투아니아兩國政府는 十九日午前十一時各其 에스토니아駐剳公使를通하야 覺書를交換하엿다 同覺書에서 리투아니아政府는 即波蘭과의 國交關係를 回復하고 兩國政府는 三月末日까지에 各其알소及카우나스에 公使館을 新設할것을 通告하여왓다 이에對하야 波蘭政府도 同文으로써 國交回復을通告하엿다

리、波兩國政府 公使를交換

【알소十九日發同盟】리투아니아、波蘭兩國政府는 十九日의覺書交換에依하야 即日國交를回復하기로되여 波蘭政府는 十九日午後 에스토니아駐剳 프로체스미키公使에對하야 臨時代理公使로서 카우나스市에 急派를命하엿다 代公使로서는 리빈스키伯이 近近 赴任하리라한다 一方리투아니아政府도 即日波蘭公使館을開設 十九日夜 外交代表가 알소市에 드러가게되엿다

藤縣戰鬪서 敵遺棄死體二千七百

【兗州十九日發同盟】十八日我軍이 入城한 藤縣一帶의 戰鬪는 城壁附近에서 敵兵과 格鬪한程度의 激戰이엇는데 그後 判明한바에 依하면 藤縣을 死守한 敵은 四川軍第百二十二、第百二十四、兩師의 約七千으로 敵은 이戰鬪에서 第百二十二師長王銘章 第百二十四師長孫震以下旅長一名行方不明이되엇스며 參謀長二名戰死、幕僚中에도 多數의 戰死者를내어서 藤縣內外에 遺棄死體는 二千七百의 多數에達하야 死屍累累한狀態이다

【藤縣十九日發同盟】臨城으로부터 東方에向하야 進擊을開始한 〇〇部隊는 臨時棗莊間에서 鐵道沿線의 敵을 急追하야 十九日午後二時頃에는 嶧縣의北方約四十키로의線에達하야 嶧縣의敵을 攻擊中이다

片野部隊猛攻 敵死體二千餘

【濟南十九日發同盟】片野部隊는 山東省南部의 要衝 沂州地方地區의敵에 攻擊을 加하야 이를 潰滅시키고 繼續하야 攻敵을攻擊中인데 前面의敵은 張自忠軍及 龐炳勳軍의 四個師로 十四日以來 我猛擊에 敵의遺棄死體는 三千에 達하고 我軍은 機關銃三十餘를 鹵獲하엿다

臨城의 戰鬪 四川軍損害

【藤縣二十日發同盟】津浦線의 要衝臨城附近의 戰鬪에서 十八日까지에 四川軍에 與한損害는 左와如하다

遺棄死體 七千餘
小銃彈 三萬發
手榴彈 三千發
小銃 六百

八面鋒

◇風乎? 雨乎? 北歐의 風雲은 리、波의 降伏으로 收後晴。
◇『力』의 勝利、『弱』의 敗北、公道로 認定된지 久而어든가!
◇合併에 맛드린 獨逸의 勿失好機來도 間一髮 逐鹿窒礙。
◇臙脂만 動케한 獨逸의、虎視耽耽 果然은 鴻鵠、『最後通牒』을 豫報는 『一時暗』으로 正誤。
◇獨逸、체코擧에 日 國境 保障할라거든 蘇聯논평이와 손을떼라。
◇東家食西家宿할가 체코擧의 苦悶도 可憐。
◇貴衆兩院制度를 急速히 改正! 年中行事 이저버리지도 안켓구나!

外油系財産收用으로 英米、墨國에抗議?

【멕시코市十九日發同盟】멕시코의 外國系石油會社와 멕시코人勞働者는 昨年來賃銀引上問題로 抗爭을 繼續하여오든바 카르데나스大統領은 紛爭解決을 爲하야 十九日午前外國石油會社의 財産收用에 關한大統領令을 發布하고 約四億圓에 達하는外國系石油會社(主로英米系)의財産收用을命하엿다 멕시코人勞働者는 카르데나스大統領의 措置를 支持하고 大統領令發布와 함께 一切作業을 中止하야 目下그趨移를 監視하고잇다 또 멕시코政府는 右大統領令發布와함께 石油國營의 作業方針에 對하야 目下 愼重計畫을進行하고잇다 外國系石油會社에 對한補償額은아직發表되지안햇다

【멕시코市十九日發同盟】카르데나스大統領이 十九日午前外國系石油會社財産의 收用令을 發布하는 同時에 멕시코勞働組合에서는 이와呼應하야 英國系멕시칸·이글 石油會社事務所를 占據하고 英米和蘭人勞働者를同所로부터 追出하엿다 米國大使館에서는 同事件을 重大視하고 다니엘스大使도 非常히 憂慮이라고말하얏다 一方 英國政府에서도 同事件에 對하야 멕시코政府에 嚴重抗議를 提出하리라한다

멕시코國立銀行 外國通貨取扱中止

【멕시코·시티十九日發同盟】멕시코大統領카르데나스氏는十九日午後大統領令으로써 今後멕시코國立銀行은 外國通貨의 取扱을 中止할것을 發表하엿다 이는 페소貨切下의準備를 爲함이라고보인다

吳鐵城廣東省主席

內의 穀閣主任余漢謀와 省主席吳鐵城廣東市長曾養甫三者間의 勢力爭奪이 甚하엿든바 最近余漢謀의 쿠데타戰術成功以來余漢謀의 勢力은 依然壓倒的으로되어省主席就任以來 廣東에相當히 資財를 갓게되엿다 吳鐵城은因하여 余漢謀와의 對立이 無益한것을 察知하고 余漢謀에 對하야 提携할 意味를가진 模樣이다 吳鐵城의 廣東軍管區司令에 就任問題는 結局余漢謀가 司令에 就任하게되여 解決되엿스나 裏面에잇서서 余、吳의 提携로부터 石陵臣의 曾養甫排擊을開始하야 廣東省內로부터 曾의勢力驅逐을 企圖하고잇는模樣이다 即曾養甫市政整理의 重要職을 辭任시키고 廣東市財政廳長에는 南昌市長劉峙을 招聘하려는說이 有力하게行하고잇는것도 余漢謀는 廣東의 消息을 말하는것으로보인다 最近余漢謀 中央으로부터 募兵을 拒否할 態度를 露骨하게 表現하면서 一方中央에는 蔣政權이沒落할境遇를 豫想하고 廣東省內에 自己獨自의地盤을 扶植하기爲하야 吳鐵城省長及蔣介石直系의曾養甫를 追出하야 中央軍의 勢力이 顯著하게될 에 益益拍車를 加하게될것이라고 豫想된다

프랑코政權에 英佛空襲停止要請

【巴里十九日發同盟】西班牙프랑코軍航空隊가 바르셀로나港에對한激烈한空襲은 佛國朝野에 大한衝擊을 與하엿는데 佛國政府는 十八日英國政府와함께 프랑코政權에對하야 空襲停止를 要請하엿다고 左와如히言明하엿다

佛國政府는 最近行한 프랑코軍飛行機의 카탈로니아地方空襲이 多數한 無辜의 市民을 殺傷시킨 反人道的行爲라고認定하고 이에對하야 사라망카政權에 空襲停止를 要請하엿다 英政府도 赤是同樣의通牒을보내리라 佛國政府는 同問題에對하야 바티칸教皇廳에 英佛兩國의 申請을支持하도록 要請하엿다

赤柴部隊長戰傷 江田中尉戰死

【兗州十九日發同盟】赤柴部隊長은 十七日驛縣戰鬪에서 陣頭에서서 部下를指揮하다가 激戰에 左背部에擦過傷을입하엿으나 元氣旺盛하야 指揮하고 同部隊江田中尉는 어戰鬪에 軍刀를들고 奮戰中敵彈에 마저 壯烈한 戰死를 遂하엿다

機銃 七十 裝甲機關車 二門 捕虜四川軍旅長以下 三千餘名

日曜氣配

▲期米 政府의買下求償待로 大槪·傍觀狀態나 底意强硬氣配小堅
▲株式 玉整理一巡으로 그後傾材出高로 人氣引縮나 環境樂觀不許 底意充分이나 新動機待로 氣配不變

大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東新 [illegible] 滿重 [illegible]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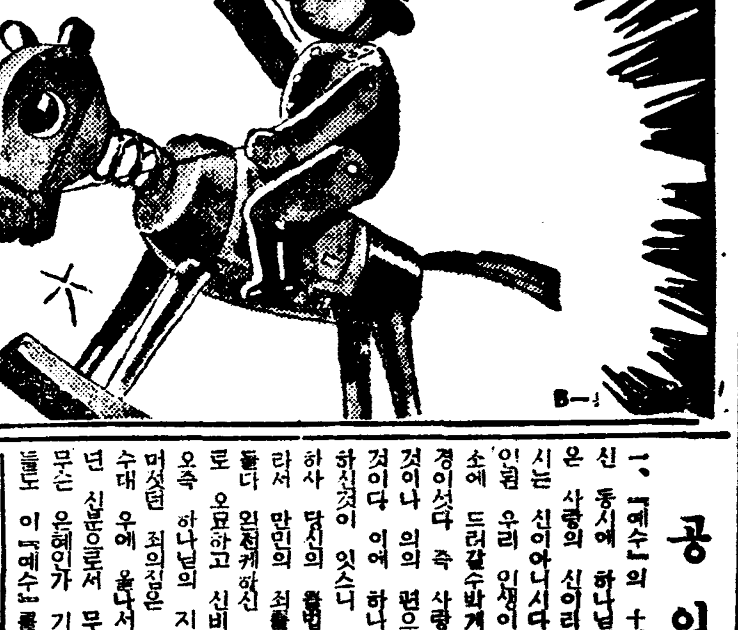
▲柳一韓氏(柳韓洋行社長) 同社事務金相豪氏、北支觀察次三月二十日午後三時二十五分車로 出發

今日本紙四面

小兒良藥 本樋屋 登錄商標

樋屋奇應丸

皇國을爲해 씩씩한아해를만드는……



母性愛의굿센 念願을達하게 하는것은

皇漢數百年의光輝잇는傳統을자랑하는金粧良藥

救急! 治病! 保健!

의神效는小兒百病을驅逐해서 全島兒童에兵役合格의基礎體質을기룬다

어려한때에!
간격、회、열잇슬때
감겨잘걸리는아해들
젓언먹고夜泣할때
吐乳、靑便、消化不良에
경력거절할때
종두、홍역의前後
胎毒과生來의弱한小兒

定價 二十錢부터十圓迄 德用包一圓

無代進呈 育兒之友 新聞名記入申込하는분에

僞造品잇슴 마-크에注意

本家 大阪天滿橋 樋屋合資會社

공의의源泉

一、『예수』의 十자가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공의가 나타나신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하야 어떠한 죄이던지 무조건하고 용서하시는 신이아니시다 지공무사하신 공의의 신이시다 그런즉 죄인된 우리 인생이 어찌 용서함을 어들수잇스랴 봉가불 형무소에 드러갈수박게 업다 이는하나님으로서도 처분하기어려운 지경이섯다 즉 사랑의편으로 말하면 인간을 다 용서하시야할것이나 의의 편으로 말하면 죄잇는자 반드시 처벌하여야 할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그 놀으신 지혜로 한가지 방도를 취하신것이 잇스니 즉 당신의 독생자『예수』를 十자가에 죽게하사 당신의 율법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대답하게하시고 따라서 만민의 죄를 사하여 주신것이다 이것이 일은바 공의를 돌다 완전케하신 十자가의 도이다 이 十자가의 도이야말로 실로 오묘하고 신비한것이다 인간으로 헤아릴수 업는 도리이오 오즉 하나님의 지어내신 계획이다 여러분이시여 그대들의 질머섯던 죄의짐은 어떠케 처분되엇는가 사형 선고를 밧고 교수대 우에 올나서 흔백이 스러질듯 집행 시간만 기다리고 인던 신분으로서 무죄백방이 웬 일인가 이 무슨 도리이며 무슨 은혜인가 기뻐뛰며 찬송할지어다 만천하인사들이여 당신들도 이『예수』를 미더 죄사함을 엇고 영생을어드소서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六種에四圓七十錢

時代進步를따라純金代用으로成功된金裝品等을不變材料를加工하여新發明된金屬品을宣傳目的으로六種全部에四圓七十錢 기회를일치말고先히注文하시면迅速히送呈함
(男女얼골이히게되는美顔料一瓶無料同送)
京城府長沙町二九 泰昌工業所
振替京城二二五〇九

문둥병
顔赤검게부어올으고吹出物手足痲痺頑固 眉毛拔으로永年이藥저藥으로도無効한분은 깃버하라 數多服用者로부터全快禮狀을보내엿다 申込者에게禮狀과病理說明書를送呈함
大阪市浪速區新川三丁目 大福堂本店

東京 明治大學
大學豫科(法學部、商學部)(政治經濟學部) 第一種(三年制) 第二種(二年制)
○試驗 第一種四月四、五日 第二種四月一、二日
大學部(法學部、商學部、政治經濟學部)
○試驗 四月九日
專門部 法科、商科(晝·夜) 政治經濟科(夜) 文科(文學科(晝)、演劇映畫科(夜)、地歷科(晝)) 女子部(法科(晝)、商科(晝))
○試驗 四月七日、八日
但女子部八四月末日迄入物銓衡ノ上入學許可ス
新聞高等研究科(夜間)一ケ年卒業
○試驗 四月十一日、十三日
規則ハ郵券封入照會ノコト 豫科志願者ハ東京杉並區和泉町豫科宛ノ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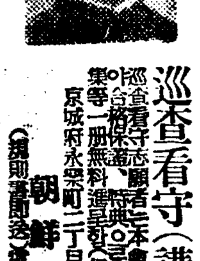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五九番

山口樂器店鍾路支店

ヴァイオリン五、五〇ヨリ各種
ギター八、〇〇ヨリ各種
マンドリン七、〇〇ヨリ各種
ウクレレ二、五〇ヨリ各種
カタログ進呈
地方御注文は前金三割以上申受ます
トンボ KKK ヤマハ 手風琴 四、八〇ヨリ各種

ハーモニカ 七五ヨリ各種
京城府鍾路二丁目

東萊養鷄孵化場 朝鮮鷄卵研究所
東萊郡南面水營 振替釜山四六四一
カタログ進呈 要三錢切手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을卒業하야合格率良好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察學會
(規則書送呈)

針路일흔發動船沈沒 四十餘乘客이俱沒
瑞山郡大川面압바다에서 乘客中七名은救助

【瑞山支局電話】십구일오전십일시인천(仁川)을 출발하야 서산군구도(瑞山郡衢島)를향하야 항행중이든 련락선(발동기선)해룡환(海龍丸)은 동일오후오시경 서산군대산면오지리(瑞山郡大山面吾池里) 근해에서 농무(濃霧)로 방향을 분간치못하야 바다속에잇는 바위에 부듸처서 여지업시 전복되는바람에 승객사십여명중 겨우일곱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약사십명은무참히침몰되엿다 구조된승객중 서산군음암면(音岩面)에거주하는사람(성명미상)한명이 도보로대산경찰관주재소에 달려가서 이십일오전삼시경에 급보하자 동주재소에서는 즉시 서산본서에 다시급보하야 동일오전여덜시에 서산경찰서에서는 사법주임이『오트빠이』로 서산지청검사가 자동차로 각각현장에 급거출동하야 방금조난자 수사에 로력중인데 피해상항기타 상세한것은 방금조사중이므로 아직알수업다

救助船急據出動 定員은五十名船名은"海龍丸"

【仁川支局電話】조선운송회사인천지점(仁川支店)소속발동기선해룡환(海龍丸)(四五톤)이십구일오전여섯시인천(仁川)을출발하야 서산군(瑞山郡衢島)으로향하야 항행중 황금산도(黃金山島)근해에서 농무(濃霧)로침로(針路)를 일키 때문에 바위와 충돌 되엿다는 급보가 동회사인천지점에 드러오자 작십구일오후한시 인천으로부터 구조선(救助船)이급거현지에 출동하얏스며 조난자수사가 여의치못한경우에는 체신당국에 교섭하야 비행기를출동케하고자 방금 준비대기중이다 이제동지점의 조사에의하면전기해룡환은선장소제갑일(小堤甲一)씨의 인솔하에 인천에서타선 재이십일명을 태우고가든것이엿는데 선객승조원을 합하야삼십여명중에 겨우다섯명을 구조하얏슬뿐으로 나머지이십오명은 아직의연히 행방불명중에잇다 그러데동선의 정원은전부오십명으로 선체도 수리한지얼마아되는것이라한다

船客氏名

◀瑞山郡梨北面貨山里 金昌圭(三)◀瑞山郡梨北面內里酒 安玉(三)◀瑞山郡梨北面大黃里 金□(九)◀黃海道安岳郡戚山里 徐明六(九)◀黃海道安岳郡戚山里 田氏(三)◀瑞山郡梨北面在曾里 張仁海(三)◀瑞山郡梨北面在曾里 張吉治(十)◀忠南瑞山郡南面 崔明男(二)◀忠南瑞山郡南面 李東淳(三)◀瑞山郡梨北面外里 朴炳源(三)◀忠南瑞山郡太安面泗今順◀仁川府金谷町一番 皐鳳國(三)◀仁川府西京町七一 李在順(七)◀仁川府金谷町 林氏(三)◀瑞山郡貴山面八中里 崔□仁(二)◀瑞山郡八峰面大黃里 安鍋雲(三)◀瑞山郡梨北面辰秋里 張錫永(三)◀瑞山一氏(三)◀瑞山郡錦山面古山里 赤一部落內 李壽京(三)◀京城府昌信町 金一 瑞氏(三)◀京城府昌信町 井소례(二)

昌慶園入場者 今日六千餘名
郊外에버러진頌春譜

이십일은 일요이고 이십일일은 춘분이다 낫은 점점길어가고 밤은그반대로 짤버저서 춘곤(春困)이라고 몸시 곤해질때이다 나무닙 풀포기에 싹이트고 먼산에 아지랑이가 끼기시작하야 치위는 완전히 물러가고 엇기 가친노인들도 안하매 겨울동안 집안에 잠겻든 시민들은모도 처럼연하는 노는날을 리용하야 창경원으로 덕수궁으로 한강으로 차저몰려나가 이십일교외는 봄찻는손으로 번잡하엿다 그중에도 창경원의 인끼는 놀랄만하야 오후한시 까지에입장자육천명을 돌파하야 금년이래의 첫기록을 지엇다 (사진은 오늘창경원에서)

京畿道內初等校長 三百餘名이會合
改正教育令과學校規定을說明 今日京城中學에서

경기도에서는 이십일오전열시부터 경성중학교에 도내공사립초등학교장삼백여명을 회합하야 개정교육령(改正敎育令)에 관한 축조설명을하야 그운용에 대한 여러가지 주의를시켯다 교과서는 금년에는 종래대로의 교과서를사용케하고 명년부터는 방금작성중에잇는 새교과서를 쓸터이라고 설명하엿다 (사진은 회의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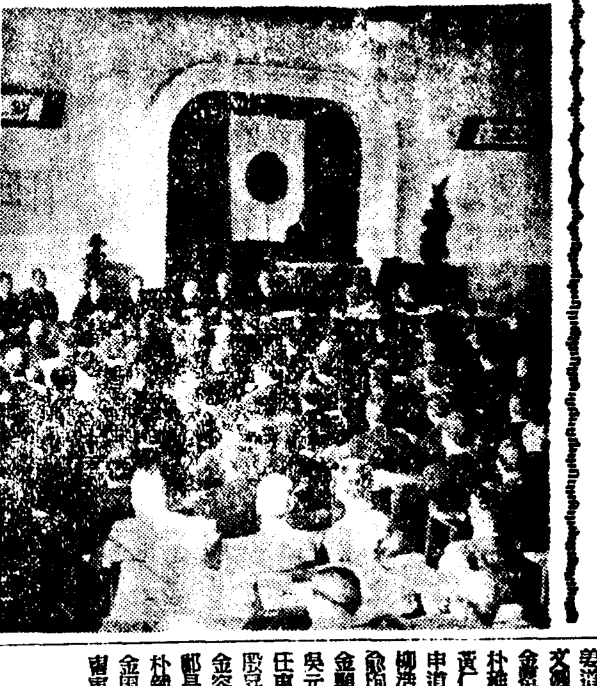
平南線에서 列車가脫線
乘客中七名이負傷

【平壤支社電話】이십일 오전열시 곰에 진남포(鎭南浦)를 떠나 평양(平壤)으로 가는 제유백이 열차가 대평(大平) 조촌(棗村) 사이를 진행하든중 오전여덜시쯤에 평양서 객차삼량(輛)이 탈선 되엿는데 요행히 전복은 면하엿다 이로말미아마 승객오십여명가운데서 일곱명은 타박상을 입엇다한다 평양으로부터 구원열차가 현장으로 급행하야복구 작업을 한결과 오후한시쯤에 겨우 개통되엿다 이사고로 말미암아 평양 진남포사이의내왕여객은 한동안은 큰혼란을이르키엇다

【大平分局電話】別報=전기열차의 탈선원인을 드르면철로가솔 파손되여잇섯기때문이라하며 인부백여명을 출동시켜서 복구작업을 한결과 오후부터 개통되게되엿다 (二十日午後四時半)

天道教第二世教祖 出生慶祝式

삼월이십일은 천도교제이세교조해월신사(海月神師)최시형(崔時亨)씨의 (第十一回誕日)인데 중앙교당에서 당일오전십시에 백중빈 리돈화(李敦化)씨 설교로 경축식을 성대히 거행하얏다



今日의卒業式

醫專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는 이십일오후두시에 제이십이회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졸업생은 칠십칠명이고 조선인졸업생은 스믈네명이다 그들은 모두 학교에남아잇서 더연구하기로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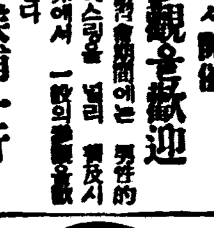
男性的快技! 레스링講習
明夜、鍾路青年會舘에서開催 一般의參觀을歡迎

中央基督敎青年會 體育部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의 第一回레스링講習會는 明二十一日 午後七時三十分부터 鍾路青年會館體育室에서 開催할터인바 參加申請은 二十日까지의 豫定이엿스나 日曜日인 關係로 二十一日午後四時까지 延長하엿다 講師와 講任을 受하기로되엿다 東京레스링部에서 技師의 責任을 마튼 今日本레스링界의 黑田完金剛鐵選手는 補助役으로 明大레스링選手金玉圭君을 同伴하고 昨十九日에 來京하얏는데 가신技備옵다하야 오직後輩養成에 徹力할터이라한다 그리고 二十六日까지의期間에는 男性的快技인 레스링을 널리 普及시키는 意味에서 一般의參觀을歡迎한다고한다

蹴球候補一行 明日東京向發

東京에서의 蹴球候補로 選拔된 金容植、李裕瀅、裵宗鎬、朴鍾鎭 四選手는 來二十三日부터 四月七日까지 東京府下 芝浦競技場에서열리는 올림픽候補合宿練習에 參與코저 明二十一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發車로 渡東할터이라는데 宿所는 靑山日本青年館이라한다

送球競技에 崔、金兩君選拔
올림픽候補로合宿



【東京】日本送球協會에서는 東京商大 會에出場할 올림픽候補選手를 選拔中이든바 于先 第一次候補選手를 決定하고 合宿練習을 三月十六日부터 十九日까지 四日間 慶應大學 日吉村그라운드에서 열게되엿다는데 送球競技에 처음으로 日本으로서 이번大會에 參加케되는 種目인데 候補選手中朝鮮出身으로 現在日本體操學校에 在學中인 崔東濬、金光鉉兩君이 選出되엿다한다 明年十一日에 東京에서開催되는 그競技規則이 세계적으로 朝鮮사람 와가튼 體格으로 特히 朝鮮選手의 예와合하는運動이라는바 活躍이자못 期待된다 (寫眞은 崔東濬君)

春季러비第六日戰績

朝鮮러비-協會主催의 春季러비-聯盟六日의 戰績은 十九日午後三時부터 上野氏指揮아래 龍山鐵道球場에서 開催되엿는바 結局 鐵道局이 大勝하야 五十七對三〇으로 鐵道隊이 勝리하엿다

鐵道局57(2631/30)3 普成專門

明日의運動

▲러비=朝鮮러비-協會主催 春期聯盟第八日 鐵道對京醫 午後二時 龍山鐵道球場 (鐵道無料)

三崇드듸여大往生
廢校指令을바들때까지

【平壤】기보=갑오년(甲午年)일청전쟁(日淸戰爭)의 전화가꼬나 평양시가가 아직정돈이되지도못햇든그다음해에 북장로파(北長老派)선교사 고배위량(故裴偉良)박사의손으로 평양시내에서분이아니라 전조선적으로 효시인신학문을가르키는『글방』숭실학당(崇實學堂)이 창립되야『양악생인』의진합장소로서 일반의경이의표적이되엿고 박해도만햇섯스나 려사의『페이지』는 한장또 한장넘어가 숭실중학교(崇實中學校)로 숭실대학교(崇實大學校)로 다시 지정숭실학교(指定崇實學校)로 숭실전문학교(崇專)로 발전하여 합성대숭실(合成大崇實)의명칭은 자매교숭의녀학교(崇義女學校)와함께고도(古都)평양의일홈과가티 반세기동안이나 벋오도 노파와갓고 이밸홈의 온상(溫床)에서는 수천의준재를 조선교회선상에 배출하엿든것이다 그러나재작년이래 신사참배문제에서 발단하여 경영자선교사회에서는『교육인회』를 결의후 이래파란곡절을 지나결국 삼교에는페문령(閉門令)이떠러지고 설립자로부터는 폐교신청을 제출하기에이르드니 숭실삼교의 려사를총결산(總決算)하는 최후오명을고하는 폐교인가지령의 수교(手交)가 기보와가티 십구일오후한시오분 평남도청지사실에서 잇게되여 삼숭의 최후전렴사의 막은나리고 마럿스며 아프든는 명실가티숭실이란일홈은 옛날의 꿈속가튼 이야기에 머저지고 말게되엿다 폐교지령교부가 마친후 숭실삼교를위하야 삼십년동안을 예의전심, 조선아동과 교육을위하야 삼십년동안을 의리(牟義理)씨는 눈물을흘리며 숭실아 잘가라는 한마듸의갈란사를 발하여 찬아 숭실을떠날 수업는 감개무량한태도를보혓다

三校廢校와 上內知事談

숭실전문학교(崇專) 숭실학교(崇中)와 숭의녀학교(崇義)의경영에 대해서는 그경영주체이든 북장로교게 선교측이 소화십일년(昭和十一年) 경성(京城)에서 개최되엿든『밋슌회』년회(年會)에서금후일반적교육사업을 계속하기는 재정상곤난한것과 당초의 리상에 배반한다는 리유로 평양의 삼교뿐이아니라 전조선적으로교육사업을 폐지한다는 결의를하고 즉시 그준비를 진행한것이다 그결과로 평양세학교에대해서는 경영폐지의전제로서 소화십이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기를정지토록 학교당국에 명령햇다

이러한 밋슌회결의의 내용이 학교관계자에게 전파되자 조선내 교육기관보급의 현상으로서도 폐지한채로방임할수업다하여 세학교를조선인측에서인계경영하려는운동이유력자간에서일어낫스나 허다한 우여곡절을지나 평양의 재산가리종석(李鍾奭)한인보(韓□甫)량씨가 사재를자하여 인계양도를바더 이것을 경영할의사가잇다고 표명하고 평양유지의 후원협력하에 재조선선교사측과 수차의 절충을한결과 내략을어더 학교새사양도에대하여 결정권을가진 재미국외지전도국(外地傳道局)에 삼교양도의요청을 하게되엿다 도당국으로서는 가령 선교사측에서 학교경영을 계속할수업다해도 조선인측에서 이것을 별도단체가 계승하여 존치하게하여 조선인측에서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개선케하는것은 가장조흔일이라 하여 양도인계가실현하도록 노력햇스나 미국외지전도국으로부터도착된는회답은작년오월에하기로결정햇섯스나 천연는천연하다가 작년시월에 절대거절한다는 회답을 보게된것이다

그런데 선교사측에서는 밋슌회의결의대로 소화십삼년삼월말일로 전연경영의 철폐를 한다는뜻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일은것이다

선교사측이 재경기타의 경우에따라 학교경영을 할수업다고 해도 자기들과 전연별개의 인물이 전책임을지고 경영하려는 요구를 거절한 리유를 리해키 에곤난하며 또다수의 교직원과 재학생의 전도를 전연돌고하고 경영폐지를 하려는것 가튼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레를보지못한 것일뿐아니라 재학생과 교원의 처치는 말할것도 업시 설립자에게 속하는것은 조리상 말할필요가업는것으로 이책임을 수행케하는방법도 전연업지 만은 다른사업과 달라 교육은 숭상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려는 열괴성을 가진자에게만 시행될 것이요 밧서 그의사를 상실한 자에게 강요할필요가업다고 생각햇스나 도당국으로서는 재산 반성을 구해보앗교도저히 희망이업서 설립자의 폐교인가신청을 인가하고 직시선후책을 강구하게되엿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계가 되엿다

사진은 폐교지령과 교부하는광경

더사재를 던저련든리 한량씨는 숭실전문 학교는고사하고 다수의재학생을 가진숭중 숭의량교의페교에 따르는 생도의구제와 중등교육 기관의부족을 보충하겟다고 리씨는시가 십여만원한 씨는 시가칠만원의 토지를제공하겟다고 이야기는 햇스나 정규의 중등학교를 설립함에는 최소한도 오십만원의 기본금과 이십만원의 건설비(建設費)를 요하므로 량씨에게 출자를 권고햇스나 종시성공하지못햇고 기타적당한 방법을 발견코저 햇스나 기일의절박으로 할수업시 도로서는수차 총독부당국과 절충한결과 만흔 희생을 도하고 광교폐지에따르는 재학생과 직원의처치를 도에서 마련선처하기로한후 소화십삼년도에 제이고보(第二高普)를설립 팔학급을설치하여 구숭중재학생중 희생자를 전형시험(銓衡試驗)하여 각기 상당한 학년에 편입하고 일학년도 이학급을 새로 모집키로되엿다 그리고 녀자고보에 사학급을증가하여 숭의의 페교가리하기로되여 일학년입학급으로 모집키로되엿다(下略)

高麗人蔘 特典付代理店募集 開城北本町 開城特產貿易社

祝入學

京畿商業

太田實 澤田五郎 津田信三 大
弗義明 山口雅男 宗像哲夫 秋
田要定 加藤敏之 川那正紀 疋
田英雄 福坂史郎 栗澤安夫 藤
川浩 道前辛男 林幸太郎 林徹
山村雄一 河瀨正敏 道下敏正 八
谷孝行 佐野豊志夫 細川寬次 江
桶義男 藤家武 下林彰 武田寬
伊藤敬辛 鈴木敏二 酒井充 緒
方信吾 岡村茂男 佐藤博 田浦
竹男 平尾信義 福田愼 門田泰
男 金義煥 金子勇雄 小泉寬 堤
大郎 原信義 星野郁雄 關本日
出男 小泉利武 三吉保 堀切正
男 李仕錫 竹中豊 鎌村正美 松
永剛 古岡裕正 原口勇 山本成
吉岡郁莉 福田功 馬場達雄 橫
山一郎 中川實 野村光夫 濱
井勇雄 桑野三 上原實久雄 北
川與人 三澤正道 周藤 永谷啓
伏木誠 村田義雄 金振雄 川上三

同德女高

동덕녀고에서는 이십일오전 열시부터 그학교강당에서 제이십사회졸업식을 거행하엿는데 졸업생은 모두 여든여섯명이며 우등생은 네명으로 그일홈은다음과같고 상급학교로진학자는 서른명이라한다 (사진 상은의전 하는동덕)

宋貞賢 韓任淑 廉玉秀 崔貞貞

男 村田明 佐藤正 前島長次郎當
野信 高橋雅博 三木克 木村裕之
宮崎良雄 市場義雄 阿曾□二 田
中新一 山口實男 酒見勝 近藤

沈相勳 朴敏和 李俊浩 李道仁
尹錫祚 金衡緖 李榮福 朴潤元
姜道熙 金鈞錦 孫基慶 李淑鎬
文義智 吳英濟 潘龍玉 金鐘培
金會煥 鄭瑢段 金瑢益 金敎鎬
朴昶英 金相淳 崔孤淳 金德國
黃仁榮 金基鳳 金鶴學 朴仁鎬
申道淳 李永泰 金鈫基 鄭周鳳
柳浩善 朴鳳鵬 金鳳煥 申鉉河
金明泰 安熙根 韓昌龍 劉漢甲
金顯相 禹英燮 尹成慶 李秉喆
吳元泳 鄭圭 張慶洙 車洪基
任東彬 鄭世澤 鄭鳳澤 朴面彬
殷元基 文時亨 裵榮甲 李右承
金容益 韓基益 韓昌洙 趙炳哲
鄭昌秀 金兩鉉 李文煥 池榮植
朴鍾喆 鄭泰嵩 李錫九 金瑪東
金周元 李元甲 李起大 徐榮錫
曹寅煥 李海寧 洪淳根 姜信昌
以上百六十名

公立職業

建築科
今永克 金冥漢 金範用 中島敏夫
李日興 洪思默 洪寬裕 權寧成
沈文燮 李永澈 金達濟 李萬福
車元鋼 金鎭斗 鄭暢珪 楊秀寅
全肇永 安東元 李秉潤 朴誠曉
鄭寬容 金永純 曹圭元 李康浩
金南浩 柳順珪 李哲雨
以上二十七名

家具科 木工部
李喆熙 金顯讚 林相煥 高翰博
崔運富 金東基 崔昌浩 朴來鉉
李鶴周 梁世鋼 李順鎬 吳昌煥
鄭彰燮 朴昌緒 金啟洙 朴道淳
金永和 文貞植 林同鉉 李容德
全完柱 金炯基 嚴智輔 李萬永
李龍相 李鎭學 宋昌植 李圭賢
南相杰 鄭圭燦 張相駿 朴基亨
郭周聲 李東鉉

鍛工部
朴商殷 盧嘉祥 金鍋寬 朴基雄
申斗泳 韓德淳 嚴基恒 金顯圭
朴泰雲
以上四十三名

機械科
李喆寧 李鳳夏 許炫 李起永
許榮泰 禹世命 沈相奎 文永畝
柳寅植 趙炳國 崔光吉 金東煥
張炳鎬 朴容福 韓富澤 裵鍾培
金元根 尹英萬 韓宗錫 李貞宰
李起魯 李泰熙 李健善 李承熙
宋基駿 金學麟 李錫圭 李命圭
洪淳玉 李吉熙 金慶相 安約天
鄭煥昭 韓壯洙 朴容來 李早憲
朱重赫 鄭龍文 河明吾 金淳國
金昌華 成文煥 姜忠錫 趙鋼濟
李富來 李東燦 安慶煥 李南壽
金鍾元 崔壽華 鄭址赫 禹成寬
郭日榮 宋庚燮 崔啟燮

土木科
崔俊植 金德萬 鄭世泰 具鶴書
李秉亮 黃義庄 金啟燦 崔中植
李鍾斤 尹星求 尹呂重 黃圭錫
李炳義 鄭滋澤 沈興燮 鄭雲成
具夢會 金建中 白光鉉 尹泰文
任謙宰 朴光夏 金正萬 李起聖
金東完 玄英洙 李基福 尹渶錫
呂鳳鈞 金長淳 黃義性 文良柱
金在榮 趙石萬 南廷龍 黃主榮
吳東赫 李觀炯 金重鳳 朴重成
李龍年 朴相錫 朴東燮 尹命鳳
以上四十四名

天氣豫報

豫報 日本內地와 朝鮮滿洲에는 日氣가 매우조타 그러나 明日부터는 日氣가漸次로 不調하여질것이다 今夕에는 흐리고 明日에는 흐리고 비가올모양인데 全國가 모다 同樣이다

最高 十二度五 最低 零下一度三 今朝 零下一度 正午 十四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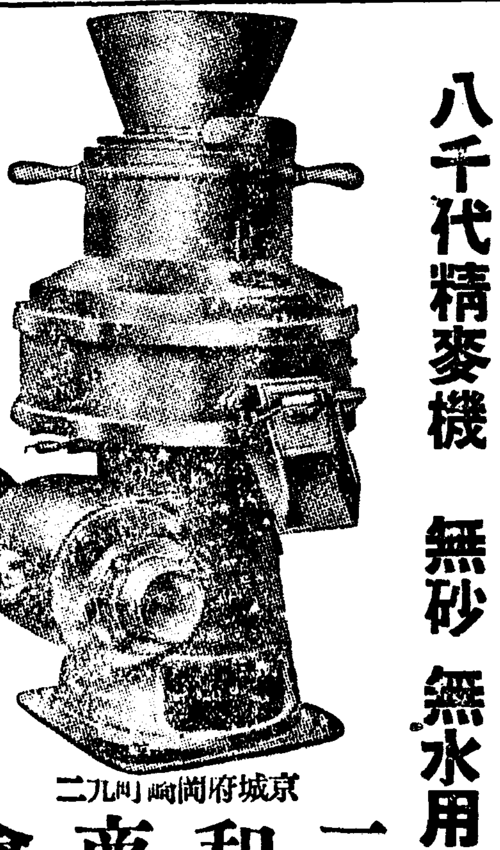
此人은 그高血壓으로 結局腦溢血中風에걸리다

血液의混濁을업새고 原因부터治療하라

右症狀은血壓이 노파서 結局腦溢血에걸릴前兆인故로 速히加療할必要가잇습니다 그러나 從來의療法과가티 血壓을내리는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니 根治시키기에는 不充分합니다 高血壓의根本的療法은 今津本舖에서는 ...

中風도快癒 半身不隨의中風이라도 リキシン을服用하면서 차차나아집니다 全國藥店에잇슴 大阪市 今津化學研究所

八千代精麥機 無砂 無水用



カタログ進呈 京城府岡崎町二九 二和商會 電話龍山九六五番

コドモのかぜねつに オイン

朝報案內

高等簿記生徒募集(晝夜間部) 京城實踐簿記學院

生徒募集 京城女子高等講習院

第五十回生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前期)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八(電話本局五三六〇)

京城中等豫備學院 生徒募集 ▲中等科 第一部、二部、三部 ▲新學期開始四月十六日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八

女給大募集 女給募集

アイスケーキ機 生產能率絕對責任保證付 京城府錦町 河內商會京城營業所

OKEH 傑作盤 風暴花櫻 金貞九 12111 오케-레코-드

一、文科 商科 數物科 第一學年 約五十名 第二學年 第一學年 約九十名 約三十名
財團法人 延禧專門學校生徒募集

漢城商業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 約百名 出願期限 三月二十日까지 試驗期日 三月二十五日부터

認公 漢榮高等學院生徒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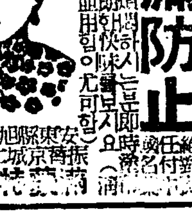
京城音樂專門學院生徒募集

中央基督教青年會學校生徒募集

電醫療士研究生募集 朝鮮高等電醫研究所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性器強大藥 男子性器短小(發育不全) 早漏에百發百中!! 早漏防止



H.H.H. サンエッチ 靴を丈夫にする 靴クリーム

大漁港建設에拍車 海面埋築具體化

工費三十萬圓으로三年繼續 元山漁業組合서決定

【元山】 원산도상에잇는 수산원산의 근간(根幹)인 원산어항을 확장해야되겟다는것은 벌서 론의를하나 실현해야될 현실적문제에 도달하야 저간 원산수산진흥회를 통해서 그확장계획의 구체안이 작성중이라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이어항확장계획의일익(一翼)으로서 원산어업조합에서는 삼개년계속사업으로서 총공비 삼십만원을 드려 사천평의 해면을 매립하야 어획물수양장으로 사용하랴는 물론 현재종업경파 해안통류중요의 이개소에잇는 사무소를 합동경영할 설비를 할모양인데 그외지는두첨입소의 중간지대가 될듯하며 매립사업은 원산부에 위촉할모양이며 신년도 예산액은 십만원이다

그런데 전기계획이 실현되는 날에는 현재 어업조합에서 사용하든 원산부유의 수양장의 반에게 공개하게될것이다 그리하야 동해안유수의 대어항건설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일반의 관심처가 되엿다

瀟城里住民들 市場設置反對

【通川】 통천군 임남면 염성리(瀟城里)주민천여명은 염성에서 사키로 상거한 자면 두배리(豆白里)에 시장을 설치하고저 함을 격극적으로 반대하여 오든중 드디여 문제는 노골화하야 염성주민오십여명련서로 두배리시장설치반대진정서를 도당국에제출코저 준비중에 잇다는바 반대가되기만기다리든중인데 도당국에서설치원서를제출하고 인민에도 염성시장에 집산하는물산이 극소하야 별경황을보여주지못하엿는데 또다시자면내이며 도합이천지에다 시장을설치하면 두곳으로전연 물산이남우이여량편시장이 전부발전되기보다도 오히려쇠퇴할우려가잇다 하며 도한현재염성시가지에서생활을하는시장에 결고잇난백여호상인의 생활에적지안흔 타격이잇스리라하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바 장차귀결이주목중이다

建議案七件採擇

平南道會無事閉幕

【平壤】 제칠회평남도회 최종일은 십구일오전열시 삼십분부터 계속개회 각의원으로부터 건절한요망의진술이잇섯다 순천(順川)박형기(朴亨基)의원은 대평양의 교통기관 서선(西鮮)경영의 전차(電車)는 고물전차이다 교통사고를 이르킴은 아니라 대도시의체면손상도 심하므로 도당국에서 개조를명하라고 경고요망햇다 령목(鈴木)의원는진남포(鎭南浦)와의사이의평남도로(平南道路)를포장(鋪裝)하여 화물자동차의왕래를 편케하여 산업계발전하도록 하라고 요망, 진남포이종섭(李鍾燮)의원은 진남포에 중앙교일교를시설하라고 건의요망햇다 송미(松尾)의원는교원의자급자족에 힘쓰기를바란다고 주의를환기, 룡강(龍岡)김병연(金秉淵)의원 룡강오천욕조가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할 것 진남포산업조합(鎭南浦産組)의 조합장문제를 선처할것인데 의 조선인이 조합장에 피선되엿스나 아직이가치안는것은 온당치아라고, 집책, 평양농화교기숙사증축(平農寄宿舍)사간군부의불요존림(不要存林)을지방관게민에게 불하할것 군부에도 시학(視學)을배치할것 학년연장과학급증가를 좀더적극적으로 실시할것등을요망, 맹산(孟山)안용석(安龍錫)의원 개천(价川)최창호(崔昌鎬)의원 북지전선의황군을 도회에서위문하고 겸하여 북지산업시찰을 하도록요망햇다

건의안(建議案)을 심의하기위하여 잠시휴게 별실에서심의위원회가개회되엿다 열하시오십오분속개 도엽(稻葉)의원으로 건의안 칠건만 채택햇다고다음과가티 보고한후 개천최창호의원으로부터 신사참배 황거요배등을 철저히 실시하도록하자는 제의를 하자 김(金)참여관은 강제로보다 자발적으로 리행하는것이 조켓고 최의원의 제안도 여기에 수정를주워 의원전부가 솔선하여 리행하기를 바란다는 의사의표시가잇슨다음 채결에드러가 전의원기립결정햇다 상내(上內)의장의 폐회 사청목(靑木)의원의 답사로 오후려시사십분 막을 나리고 별실에서 북지출정장사 위문사파견에 대한 간담이 잇섯는데 군부(軍部)와 련락하여 적당한시기에 적당한 인원을 파견하기로 되엿다

◇採擇된建議案

一、鎭南浦府에 公立中學校設置의件(李鍾燮議員外二名)

一、鎭南浦港에 防波設備에關한件(靑木健二議員外二名)

一、[illegible] 施設할것을希望함(金東筠議員外四名)

一、家屋稅는 賃貸價格을 基準으로하여 公平賦課를 期할것(白永錫議員外三名)

一、醫學校에 新히 [illegible](白永錫議員外三名)

一、[illegible]川郡에 乙種農業學校 設置에 關한件(白永錫議員外三名)

一、咸南永興郡山城里[illegible]入하도록 할것(安[illegible]議員外三名)

阿片密輸團送局

甕津署서取調마치고

【甕津】 지난팔월경해도 옹진경찰서에서 군내모히환자를 일체수색하든중 서면(西面)읍저리에서모히환자 일곱명을 검거유치하고 엄중취조중이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동서에서는 그동안 주야검행으로 취조를 마치고지나간 십팔일에 해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 함께 송치하얏다는데 그호자세한 사실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모우편소장과 의사 리춘호(李春浩)(假名)의 두사람이 수모자가되야 가지고 여러해동안을 두고 나려오며 우편소장의 직무와 의사의 직업을 리용하야 모방면으로부터 다량의마약(麻藥)을 사드려다가 계속적으로 밀매를 하야 거액의리익을 보앗슴이 전부탄로 된것이라고한다

新年度光州府豫算 七十六萬三千圓

比前年二十二萬八千餘圓減 府會는廿一日부터開會

【光州】 전남광주부의 신년도예산총액은 칠십륙만삼천삼백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야 전시경제자원통제로 인하여 이십이만팔천여원이 감소되엿는데 그예산을 심리할광주부회는 이십일일오전십시부터부회의실에서 개회할터이란바세입세출과 신구중요사업은 다음과가트다

◇歲入

◆經常部豫算額 二十七萬七千六百八十六圓

◆臨時部豫算額 四十八萬五千六百十四圓

計七十六萬三千三百圓也

◇歲出

◆經常部豫算額 十九萬五千六百七十圓

◆臨時部豫算額 五十六萬七千六百三十圓

計七十六萬三千三百圓也

十三年度新規直營事業

一、錦町 楊林町間橋梁架設

一、芝山町 東町間道路擴張工事

一、楊林町道路工事

一、松汀里 光州間道路鋪裝未整工事

一、北町下水道暗渠工事

一、大正町 明治町下水道工事

一、湖南町 黃金町下水道工事

一、須奇屋町道路擴張工事

一、府廳舍及公會堂新築敷地買收

一、光州師範學校敷地買收件

其他繼續事業要件

一、第二水道工事費四十七萬餘圓의 四個年繼續事業 今年度支出額二十一萬五千圓也

一、景陽池埋築費十八萬餘圓의三個年繼續工事 今年度支出額八萬二千二百五十圓也

勞働移民先發隊

木浦、和順等地의五百餘名 元山으로近日中移送

【咸興】 남조선로동자의 금년최초이민—함남도에는 금년에잇서서 여러가지대공사가 이러나서 작년보담도오히려 더부족될것을 예상하고잇는데 남조선로동자의일선을요청하고잇는데 제일착으로 목포(木浦)화순(和順)에서 사백팔십륙명가족까지합하야 오백사십일명을 오는이십육일부터 이십팔일까지에 원산(元山)모공사장에 수송하다고한다

各學校合格者

木浦商業

金相容 朴五喆 金炫榮 李正老 金南圭 鄭毅采 崔寬熙 姜濟遠 朴價錫 金英發 高承萬 鄭東勉 趙權杓 徐鋼律 金泉來 金吉松 鄭浩宿 羅鋼九 黃仁鉉 金行基 郭寬洲 鄭茂勇 李東榮 羅禮洙 金淳宇 金龍起 徐炳泰 曹定煥 徐基鎬 姜海鍵 朴今煥 姜南遠 朱安國 金鍾敏 金性淳 曹錫星 任煥斗 徐甫圭 金炳權 湯承九 李堯湖 鄭泰默 崔載敏 金慶亮 高正一 韓正均 金容辰 梁振燮 黃 損 尹賢洙 金永南 趙成允 金相昱 羅福均 梁救敏 金英權 郭爽斗 金根厚 金錫夏 尹泳鎭 金胄率 朴鍾完 金義洙 金炳甸 李性珉 金貞洙 梁碩範 金萬吉 張敏相 鄭守海 金在善 河在錫 尹正泰 金祈浩 安炳榮

沙里院農校

安熙晟 郭斗璽 李宗烈 閔福順 金裕學 張利泰 張鶴集 李淳贊 田永燮 郭基峰 李根洙 金鳳和 前田熙 梁仲涉 金秉權 李義弼 金仲明 大川信一郞 申鉉三 權仁成 黃益煥 盧榮鎬 李根瑞 李 鋒 沈明燮 柳昌業 呂俊國 朴基贊 金泳淳 張炳錫 韓泰發 李明春 高顯成 高享燦 朴允中 朴根澤 李寅奎 金泳混 金錫基 金錫勳 趙鍾文 張熙鎬 朴泰興 金處參 李炳淳 韓旺鎬 李炳錫 河聖玉 大澤俊夫 金錫柱 柳定基 靑島勳 平塚泰山

二十日(日曜)

◇午後六時(釜山)라디오朝鮮求景(全國中繼)「南鮮、中鮮篇」 釜山어린이會 DK어린이會

日埃國際放送—「埃及카이로」로부터—

◇同六時二五分 一、人事 二、講演經過 三、日本國歌 埃及國歌 嘉納治五郞 永井松三 바이에・라츠ー己伯 모하메드・타엘파샤

◇同七時三五分 一、孔明歌 二、靑春歌 三、진난봉가 四、자진난봉가 五、開城난봉가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 (東)피아노獨奏 (一)前奏曲A音 쇼팡作品—第二夜 (二)練習曲(全曲)

◇同八時二五分 라디오說話「어머니」—安夕影作 [illegible]

◇同九時 (平)[illegible]

第一放送

◇午後六時(釜、城)라디오求景

◇同七時三〇分 (東)日曜演藝

◇同八時 (東)피아노

◇同八時二五分 (東)長唄

◇同八時五五分 (東)物語

二十一日(月曜)

(春季皇靈祭)

◇正午 入學試驗合格者發表(京城)—京城貞信女學校—

◇午後〇時五〇分 名曲鑑賞(레코-드)

◇同一時五〇分 大學講座 一、[illegible]

◇同二時五五分 [illegible]

◇同六時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同七時三五分 [illegible]

◇同八時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illegible]

◇同九時 女聲合唱及獨唱 [illegible]

長篇小說 林巨正 【71】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소굴(卅九)

큐도사가 봉산장터 한바닥을 떠들코나오며 좌우를 흘리보아도 편쪽하나 눈에 뜨이지아니하얏다 서흥가는 길목까지 거이 다나오다가 홍제 말머리를 도리켜서 편가를 향하고 들어왓다 말이 눈에인은 흥산문을 바라볼때 대가리를 치켜들고오 홍소리를 질럿다 작청(作廳)아메바힌 등그나무아래 사령서넛이 안저잇다가 말소리를 듯고 부지런히들 쫏차나가니 큐도사는 말을 세우고 사령들 오기를 기다리엇다 사령들이 말머리에 와서 허리들을 굽신굽신한뒤

『나리 웬일이십니까』

『엇재 돌우오셧습니까』

『평양행차를 고만두시기루 파의하셧습니까』

제각기 한마듸식 뭇고 다가티 큐도사를 처다들보는데

『이놈들아 이눈깔업는놈들아』

큐도사 입에서 까닭업는 호령이 나와서 사령들은 어리둥절하얏다

『나를 유도사로루 아느냐 이눔들아 내가 임꺽정이다 임꺽정이야』

꺽정이란 일흠이 말는하눔의 벼락치는소리만 못지아니하야 사령들의 얼굴이 당장 마전한것가티되엿다 그중의 하나는 겁을 잔뜩집어먹어서 두어개들귀미테닷도록 주키고 부들부들 떨기까지하엿다

『너의원님한데 내말좀 전해다우 내가이틀동안 호대를바더서 치사하드란다구 그러구 말은 두구가야 올치만 다시생각해본즉 전군수 박용선이때 내발 한필이 여기와 잇스니까 그대신으루 타구간다드라구해라 또똑이들 들엇느냐』

사령들이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달려가는 말뒤를 바라보고 섯다가 겨우 입들이 떨어저서

『안전께서 올에 망신살이 버치섯네』

『구편가르시면 허무하게 속지안흐섯슬걸』

『꺽정이가 하여튼 담보큰놈일세』

『나는 그눔이 우리를 죽이는 줄 알엇네』

『얼른 편가에 들어가서 말슴이나 알외세』

서로 짓거리고 황황분안으로 몰려들어와다

군수가 사령들의 알외는 사연을 듯고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나중에는 분통이 터저서 펄펄 뛰엇다 방에서 일어서서 대청으로 나와서 발을 굴르며 사령들을 호령하얏다

『너이놈들이 힘이 모자라서 그럴놈을 이러케 노치단 말이냐 허룸을 드러래란』

하고 일른고 꼿다시

『아니다 수교를 먼저 불르래란』

하고 고처일럿스나 통인하나가 대청마루끄테 나서서

『급창아』

『네이』

『수교 불르랍신다』

『네이』

『사령』

『네이』

『수교 불르랍신다』

『네이』

급창이 삼문밧글 향하고서서 긴대답이 나오자 엄마아니잇다가 수교가 들어와 대령하얏스니

『꺽정이란눔이 류도사루 행세하구 와서 내발을 훔처갓단다 지금 서홍길루 내뺏다니 오늘해에 검수(劍水)나 서홍 바게 더가겟느냐 장교 오륙명결정해갈것는아이를 뽑아서 곳그눔뒤를 쪼처보내라 그눔이 겸수서 묵거든 엿줄의 조련을 밧구 서홍까지 갓거든 서홍관속과 합력해서 그눔을 잡으면 조흐 그눔은 노치드래도 팔이나 차저오게 해라 그러구 그놈이 흑 초가에들어가서 묵을는지 몰르니 연로에 잘 알어보며 가라구 일러란』

수교가 군수의 분부를 드티어서 장교 대여섯을 쪼차보냇는데 그장교들이 서홍까지 밤길을 걸저고 이튼날 돌아와서 애매한 물기틀만 마젓다 사령셋이 전날 매를 죽도록 마진것은 다시 말할것도업는 일이엇다

꺽정이는 그날봉산읍에서 단참에검수역말을 와서 말을 여물먹이느라고 잠시 지체하고 다시 길을 나섯는데 서흥장을 건늘때 해가 팔바 다 젓스나 달이 대낫가티 밝아서 답비를빼고 서흥음에 들어와 숙소하라다가 얄길을 좀더 주라나고 룡천역말(龍泉驛)와서 숙소하고 이튼날 평산읍을 지날때 봉산서 와가티 본색을 알리라다가 친한 리방에게 말성이잇슬까 저어하야 그대로 지나 김암역말(金岩驛)와서 중화하고 해다진 뒤에 청석골을 들어와다 말이 걸음을 잘하야 삼백리 넘는길을 이틀에 온사리 오것이다

感冒解熱特効藥 定評잇는 實効散

科學藥과 가티 中毒副作用잇슬 염려업고 婦人小兒에게도 安心하고 쓸수 잇고 또 藥効를 자랑하는 感冒解熱의 特効藥입니다 꼭 試用해보십시요

입니다!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五圓

全國各藥店에잇슴

東京神田町神下 師岡天然堂 振替東京 二三七二

NO.13

志らが赤毛染 곱고윤한黑髮! るり羽

生生한 젊음과어여뿜 이야말로 るり羽 가가진魅力

特長

一、洗髮後[illegible]안해도곳드릴수잇고

一、藥은조곰식洗湯에녹고

一、洗髮할수록色艶이더하고

一、옷깃과베개를더럽히지안코오래가

一、日本髮洋髮어데나조코 가장쓰기조흔染毛劑

(全國藥店에잇슴)

小型発動機用 重油完全燃燒機

本機의特長 非常時 燃料節約은 本機로서

完全燃燒 回轉不變 馬力强大 始動容易 構造簡單 堅牢無比 故障絶無

【型錄贈呈】 各地特約店大募集

價格		
	3馬力…4馬力半用	70圓
	5馬力…5馬力半用	90圓
	6馬力…6馬力半用	110圓
	7馬力…7馬力半用	130圓
	8馬力…………用	150圓
	9馬力……10馬力用	170圓

特約・注文・殺到!!

從來어느式石油發動機에든지 그前面部分「헤드」만을떼여내고 그代身에新發明「重油完全燃燒機」를 簡單히 裝置한뿐으로갑싼重油를 完全히使用할수잇다는喜消息이 한번世間에宣傳되자 滿洲、北支에서까지注文이殺到하오며 特約店의連立을 보게됨은오로지弊機의偉力이오며 弊所의光榮인가합니다

●아직도 特約店未定地는時急申請하십시요

●注文時는 반드시 무슨式、몃馬力을明記하십시요

本機를裝置한 小型發動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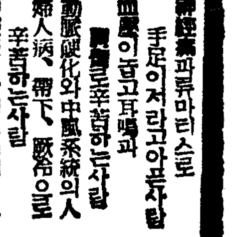
製造發賣元 金光鐵工所 京城府中林町67 電話本局②273・振替京城28305

腸 に と

專賣特許 家庭の温泉 六一〇ハップ

모든病이나기쉬운早春에는 家庭에서溫泉浴治가第一!

속에서부터훗훗히더워지는常春의快悅!



【各藥店에잇슴】

神經痛 류마치스로 手足이저리고아픈사람

血壓이높고耳鳴과 眩暈으로辛苦하는사람

動脈硬化와中風系統의人

婦人病、帶下、腰冷으로 辛苦하는사람

神經衰弱、히스테리ー로 뒤숭숭해서잠잘수없는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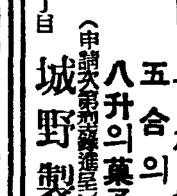
脫肛、痔疾、疣痔、穴痔等 痔疾로辛苦하는사람

대、凍傷、皮膚病

惡瘡流行의豫防에

發賣元 六一〇ハップ本舖

リード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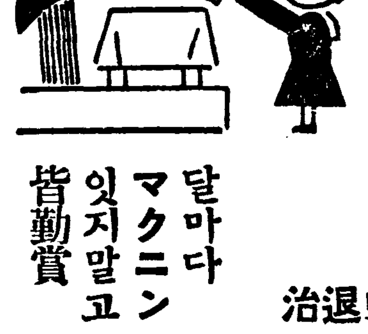
釜山府寶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商標 千 都 고추가루

釜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園)一一八二番 一三八二番 振替釜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虫退治 マクニン

달마다 マクニン 잇지말고 皆勤賞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武田發賣品

淋疾

急性이나 慢性에도 잘奏効합니다

其他淋疾性副睾丸炎、淋疾性關節炎 淋疾性攝護腺炎에 賞用됩니다

イスラビン 糖衣錠

イスラビン糖衣錠은 醫家用淋疾治療劑イスラビン(靜脈內注射用)을 改良해서 靜脈內注射에 依지안코 簡單히 內服療法으로 奏効하도록 考案한 新治療劑입니다. 勿論副作用도업고 또 그殺菌作用은 오히려 注射時보다도 持續하는 特長이잇습니다.

(用量) 一回一、二錠宛 一日三回每食直後服用

主効分は三・大ヂアミノ―〇ノヂルアクリヂニウムクロリッド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담배를피우시면

스모카를쓰라

스모카는 主로喫煙家의 齒磨입니다 故로 스모카를 쓰시면 齒齦의 검은 진이곳다가집니다 그러고喫煙家가안일지라도 누구의 齒齦나 純白한빗을 나게합니다 스모카는 過度한喫煙으로 생기는 입안 헤진데! 냄새! 食慾의 不進! 그것을 防止해서 口腔을恒常正當한 狀態로둡니다 스모카의 粉末에는 適當한濕潤이 含有해잇습니다 그것은 헤푸게散亂하는것을 防止하기 爲한것입니다 一人一罐의 使用量은 約一個月强 그以上의 消費는濫費입니다

藥店・雜貨店・化粧品店・煙草店에잇슴 定價 十五錢

黃海道內自作農 二百六十戶創定
道에서郡別로配當中

【海州】황해도당국에서는 총독부방침에따라 농가구제책으로 저리자금을 융통하여가지고 자작농(自作農)을 설정해오든터인데 신년도에도 예년에의하야 십륙만오천원을 기채해가지고 도내에자작농가 이백륙십오호를 설정키로 결정되어 방금군별로자작농가설정호수를 배정중에잇다

玉山里貯水池 四月中엔着工

【西上】화순군 서상면 옥산리(西上面玉山里)구창신상대(陳相大)씨는 그동네서북편에잇는 답은전답이한재(旱災)로 해마다피해를당하야 농민들의 걱정거리가되여오던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면장여규섭(呂圭燮)씨와 상의하야 도의보조로 수리조합을 설치코저 교섭하여오던바 거년십일월 함안군군북면 명관리 리인섭(李仁燮)씨가 단독으로저수지를만들기로되여 십이월팔일에 지주회를열고 제반사업시설에 수세(水稅)등을 결의하고 지주백이십일인의 날인(捺印)까지바더 금년이월십구일에 제반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엿다는바 불일간에 허가가될것으로 는저도 사월하순에는 공사에 착수하리라한다 저수지가 완성되는 날에는 구만여평의 지목변경(地目變更)까지 될것이라한다

農城國婦會發會

【農城】지난십륙일정오군농상공보교정(城津郡農上公普校庭)에서 관내면장의 사회로국방부인회발회식을 경찰서장이하유지제씨의 축사로 성대히 거행되엿는데 회원은 약백명가량으로 오후세시에 폐회하엿다한다

農牛만먹는大盜
光州、和順、潭陽等地를橫行
十數頭를竊取賣却

【光州】전남화순군북면수리(和順郡北面水里)사는 김만순(金萬淳)은 작년십일월에 회순군회순면서태리(和順郡和順面西台里)조희환(曹熙煥)의소유 농우한머리 시가약일백여원되는것이 들에매여잇는것을보고 임의로끄러다가 광주시장에서 팔어먹은것을필두로 광주、화순、담양(光州、和順、潭陽)등 각군을중심으로 농우를 전문으로 절도질하야 총수 십수두(頭)를 방매한것이 일천수백원에 달한다는바 밀정엔 광주경찰서에 체포되야 엄중취조를 밧고잇다

술먹이고주머니터름

【永興】지난십사일오후두시경 함남영흥군횡천면대평리(咸南永興郡橫川面大坪里)에는 자기의친구를 술로마추시켜노코 수중에 잇는돈을 빼아슨사나이가잇다— 즉、대평리에사는 류창봉(劉昌鳳)씨를 요덕면화전리(耀德面花田里)에사는 김병석(金秉石)(假名)(二〇)이라는 사나이가 길에서 만나 그동리 모주점에가서 취하도록 술을먹인후 주머니에 너헛든 금이십원을 훔처내여감추엇섯는데 마침 술집주인이그눈치를알고 순찰중에잇는 대평주재소(大坪駐在所) 한순사(韓巡査)에게 알리여 취조하려고 하자 범인은 날새게 도망하므로 꽁무니를 따라추격하여 동일오후시경에 드디어 체포하엿다는데 범인은십오일 영흥경찰서에 압송하여 방금엄중한취조를 밧고잇다한다

所在地의町名을따서 學校名稱을變更
廿五日까지全南道에서

【光州】조선교육령개정(朝鮮敎育令改正)에따라 종전의보통학교와고등보통학교의 교명을 소학교또는 중학교로 변경한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오는사월일일부터이십오일까지 도당국에서 결정할터이라는바 경성(京城)과가튼대도시로 초등학교가 만흔곳보다도 중간도시인 각도청소재지에잇는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등에잇서 학교차림년조에비취여서 그도시명(都市名)을보처명명할것이며 제일중학 제이중학이라고 개칭하더라도 학교창립년조에 의할것이나 탈군한바에 의하면 종래 중학교와소학교만은 그 지방명을 대표하야 그대로두고 고등보통학교와 보통학교만을 학교소재 정명(町名)에달하야 변경한다하니 이는교명변경하는 본의에 배치된다하야 일반은 그명칭변경에 매우주목을하고잇다한다

地方人事

▲郭在禧氏(醫學博士)開業人事次本社釜山支局來訪
▲李炫氏(泰安金融組合理事)轉勤人事次本社唐津支局來訪
▲鄭銆氏(前恩山稅務署直稅課長)咸興稅務監督局轉勤人事次本社恩山支局來訪
▲金潤基氏(恩山稅務署直稅課長)新任人事次同上
▲柳興相氏(前成歡金融組合理事代理)全南得根金融組合理事榮轉人事次本社成歡支局來訪
▲橫山春一氏(警部補)陝川警察署警務係主任赴任人事次本社陝川支局來訪

元山市街計畫令 不遠公布實施?
人口十二萬名을包擁할大計

【元山】현재면적의 이배이상인 삼천오백만평에다 인구십삼만명을포용할 원산부의 삼십년대계인 원산시가지계획안은 원산부를위시하야 각관계군면을 통하야 벌써 그자문안이 총독부에회부된지 오래엿스며 지금엔 다만고시가지 계획령의실시만 고대하고잇섯는데 불원에 원산도 적용하게되여 곳실시를보리라고한다

官舍專門竊盜 格鬪後遂逮捕

【大田】대전서내를중행하며 각관사를 전문으로침입하든 괴적은 드디어 대전서에 체포되엿다 이사건으로 대전서에서는 매우초조중에 잇든사건의 주인공과절취한물품을 구루마에 끄을고대기며팔든범인들은 마침내체포되엿다 전과오범의 설상근(薛相根)(三)은 각관사로배회하며 수십처에침입하야 다수물품을 절취하든범인으로 지난십칠일오전한시경범인의집에 숨어잇든 정형사의손에체포되엿고 또한건은 전과오범의 권병식(權炳植)(三九)은 작년유월에 공주형무소를나온후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수십처에 침입하야 물품다수를 훔처가지고 구루마에실고팔며돌아다닌다는 소식을듯고범인검거에 활동하든중 지난십팔일 오전다섯시경 대전서정형사가 영정다리우에서 발견하고 체포하라고 할지음에 범인이와강히 거절하야 일대격투를 연출한후 체포하엿다

慶南不良井水 改善工事不進

【釜山】경남도내에 산재한 공동정호(共同井戶)중 불량한것이 사천팔백사십칠개소에 달하므로 경남도위생과(衛生課)에서는 주민위생에 중대한 관계가잇다고 그개선을 계획한후 각관할경찰서거라 관청을독려하야 작년봄부터 개선에착수하야오든바 소화십이년말까지에 일천륙백삼십구개소는 개선되엿스나 아직삼천이백팔개소는개선공사에 착수하지못하고잇다고한다 그래서십삼년에도 계속하야 개선하고자 방금 여러가지로 계획중이라고한다

長篇小說 濁流 【154】
蔡萬植 作 鄭玄雄 畵

도 좌지안헛다。

대체 조고만한 어 군산바닥어 이러할비이면 조선 전체는 어떠할꼬 이것을 생각해보앗슬때에 승재는 딱 겨가 질렷다。

단지 눈에 띄어는 남의 불행을 차마 보지못해 제 힘잇는것 그를 도아주고…도아주고 하는데서 만족하지를 안코 그불행한 사람들을 주체삼어 글러두 눈을 돌리게된것은 승재로서 일단의 진경이라하겟다。

그러나 그는 겨우 그 당(當)에로 눈이 갓슬뿐이지 질(質)을 알어낼 시각(視角)은 갓지를못햇다。 가난과 무지와 병으로해서 불행한 사람이 만흔줄 까지는 알엇서도 사람이 어째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에 지고 하는냐는것은 아직도 모르든것이다。

그러키때문에 승재의 지금의 결론은 절망적이다。

—그 수태만흔 불행한 사람을 약사발리 한두사람이 구제할수는 업는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눈으로 보고서 차마 못해 도분이나 되려 구제니 또는 치료니 해주는것은 결국 남을 위한다느니보다도 위선 제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제노릇에 지나지못하는것이다……。

이러한 해석끄테 그러면 어떠케해야 올흐냐고 자연 밟분을 하는데 거기서는 아무러케고 할수업다 는 대답밧게 나오지안헛다 넘우도 허망햇다。

승재는 막막햇다。 그러고 일변 게몽이로해서 서울로만 가고십헛다。 그런데 게제에 서울로 올라갈 기회가 생겻든것이다。

그러니 결국 게몽이한테 끌려서 또 한편으로는 예가 답답하니까 새로운 공기 속으로 도망을 가는것이지만 승재 제요량에는 서울로 가기만 가면 좀더 널리 그리고 좀더 효과잇게 일을 할수가잇겟지 하는 히망도 업든 안햇다。

×

『자ㅣ 오늘은…』

승재는 아어들을 내려다보든 얼굴을 역시 별 의미업시 두어번 끄덕거리고나서 말을 내든것이다。

『…공부는 그만두구 느이허구 나허구 이애기를 한다구…』

『네에』

모두 조하서 한거번에 대답을한다。 내노앗든 공책이며 책을 거더치우느라고 잠시 분수하다。

『내가 내일이면 저어 서울루 떠나는데…그래서 느이허구두 인제는 다시 못맛나게되엇는데…』

말이 떠러지자 아이들은 잠시 덤덤하더니 이어 와ㅣ하고 제각금 한마듸씩 지꺼린다。

어째 서울루 가느냐고 심심섭섭한체 하는놈 서울루 떠나지 말라는놈 언제 멧시 차로 떠나느냐고 정거장까지 배웅을 나가겟다는놈 저이끼리 쑥떡거리는놈 해서 한참 요란하다。

승재는 물그림히 내려다보고 섯다가 교편으로 교탁을 따악친다。

『그만하고 조용 해!』

아이들은 지꺼리든것을 한거번에 뚝 근치고 고개를 똑바루 처든다。

『자아 느이들 내가 불으는대루 하나씩 하나씩 일어서서 내가 뭇는대루 다 대답해보아? 응?』

『네에ㅣ』

승재는 아어들더러 이애기를 하자고는 햇지만 그래도 명색이 작별하는 마당인데 여니때처럼 토끼나 호랭이 이애기를 할수는 업고해서 어쩔고 망서리다가 문득 심심찬을 거리가 생각이 낫든것이다

『저어 너 창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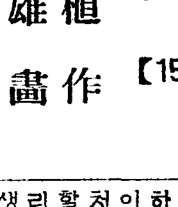
승재가 교편을 들어 가르키면서 일음을 불으는대루 한가운데줄에서 열대살이나 먹어보이는 야불치게 생긴놈이 대답을하고 발딱 일어선다。

성한데보다는 뚤어진데가 더 나은 검정『고꾸라』양복바지에 얼숭덜숭 무늬가 백힌 융샤쓰를 입고 이마에 보거숭한 숭이 잇는 아이다 눈이 뚜렷뚜렷한게 무척 역게생겻다。

그밧게 종기야 가슴애피야하고 모여드는 사람은 유루 해일수가업다 큼직한 종합병원하나를 채리고 안젓서도 그사람들을 골고루 만족히 치료해줄수는 업슬것 가타다 그런것을 낫에는 병원일을 보아주고나서 오후와 밤으로만 그수응을 하자하니 도저히 승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재주가업섯다。

더구나 돈 그까짓 삼사십원을 가지고 그 수탄 배 고픈 사람들을 갈려 먹어자니 마치 시장한판에 밥알이나 한알갱이 입에다 너코 씹는것가터 간에

승재가 가난한사람의 병든것을 쪼차다니면서 돈 밧지안코 치료해준다는 소문이 요새와서는 좁다고해도 인구가 륙만명 어 넘는·어 군산바닥에 구석구석 몰으는데업시 고루 퍼젓고 그래서 원근한데도 어찌하지못하는 병자만 몰아보아주재도 항용 열씩은 더 된다。



二大附錄つき四月特大號

家庭料理大全集
堂々六百二十頁! 豪華書籍

日本一! お料理の決定版!!
春のお惣菜百八十二種 方作
夏のお惣菜百四十八種 方作
秋のお惣菜百四十種 方作
冬のお惣菜百二十九種 方作

▲一年中のお辨當のおかず百六種
▲變り御飯とお鮨三十六種
▲一年中のお漬物八十二種
四季の榮養お獻立 藤卷良知
▲榮養料理八十八種の作り方
▲病人料理九十五種の作り方
秘訣公開 お料理一切の重寶集
▲食卓話題 ▲夏の飲物 ▲美味珍味 ▲料理秘訣

大特長!
・トテモ經濟なものばかり!
・とても美味しいものばかり!
・榮養滿點のものばかり!
・手輕に出來るものばかり!

之こそお台所の非常時突破の虎の卷!!
實物を見たら誰でも驚く! きつと手が出る!! 之を備へるか備へないかで家庭經濟がグッと違ひます!! ゼヒお早く!

婦人俱樂部

物價騰貴に備へて家庭の切廻し方研究會
物價はグン〳〵騰る、此際どうしたらよいか、身近く迫つて來た家庭經濟の危機に對する實際的の切廻し方を斯界の權威者が懇切に指導

▲松井凱旋將軍の御家庭座談會
▲東本願寺智子裏方の皇軍慰問感激談
特に本誌の爲に最近の心境を洩せる赤心の感激談・尊き御身を以てこのお心遣ひ！ただ感激、ただ大感銘・

不良學生の實情を語る座談會
世渡り講座 人前で笑はれぬ秘訣十ヶ條
▲征旅の夫にさヽぐ(豪華口繪)歌…葛野雅子 ／ 入江たか子
▲棚橋絢子刀自百歲の思ひ出アルバム
▲銃後を守る地方女子青年團の活躍を見る

エノケン對ハチロー 春宵表情くらべ

お子樣大喜びのおみやげ附錄 栗兵衛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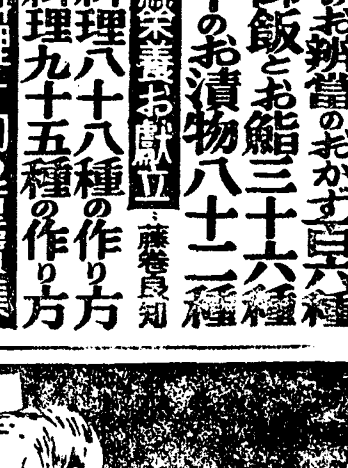
夫に倦きられない妻の修養法 菊池寬
人妻も見よ娘も讀め 夫婦間の問題に就て造詣深き筆者がその圓滿解決法を諄々として說ける夫婦讀本
結婚させるわが娘葉子に與ふる書 加藤武雄
小說家としてでなく一人の父として娘の幸福を希ふこの切々の愛情、讀みて誰か感動せざらん。
不姙と諦めた私が一寸した工夫で子寶を得る迄
着られなくなつた衣類の再生法九種
物の節約時代！到底使用出來ないと思ふ物でも新品同樣に若返る再生法、ぜとお試め下さい。
月經初潮の娘と母の衛生問答 福井正憑
青春期のお孃樣方に一番大切な性敎育！初潮期に對してどんな心構が必要か？懇切に指導された名篇
寢枕の應用で十一年目に ▲晒布の腹帶と入浴治療法で ▲黑砂糖の洗滌で 等々長年の不滿を見事解決

池坊家元宗匠の十二ヶ月生花傑作集
▲結婚一週間の僞はらざる日記二篇
▲卒業後のお孃樣の上品で着崩れせぬ着附の秘訣
▲五十錢以內で出來る男女兒用洋服下着三種
▲薄給の中から一千円貯めた經驗實話
日給一圓七十錢で四年間に四千圓・子供四人に月給五十七圓の家庭で
▲硫黃で皮膚病を治した私の經驗
水虫、たむし、そばかすの頑疾がケロリと治つた體驗の數々

日本一の小說欄
傑作讀切り
悲劇小說 涙の責任 竹田敏彦
戀愛小說 春雷 加藤武雄
明治小說 月夜紅梅 邦枝完二
悲劇小說 愛染かつら 川口松太郎
▲愛の北國歸線 橋爪健
▲消えた風車 湊邦三
股旅小說 お辰街道 子母澤寬
戀愛小說 女性の戰ひ 菊池寬
諧謔小說 新花嫁かるた 中野實
現代小說 日本の薔薇 林芙美子
▲花散りそ實みのる 戶川貞雄
▲双つ燈籠 小山寬二

大奮發 八十錢
送料十七錢 臺灣、滿、鮮に限り定價八十八錢

—東京・小石川・振替東京二九三〇—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淋疾이면곳

루ー베리

리베ー루의特徵
一、粘膜으로의吸收가迅速하고服藥翌朝尿는藍色으로變하고强한리베ー루臭를放散하야排出하고急速히快感을感覺함
一、尿道를侵害하고잇는無數한黴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야殺菌되고尿로말미아마體外로洗出하고性痛症을消散함
一、藥效를아는대는리베ー루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바더專門家에게顯微鏡으로比較檢査를해보게하는것이가장速한길이며服藥後黴菌의死滅해가는現狀을볼수가잇슴

危險한療法은避하라

素人의尿洗滌又는局所療法等은잘못하면副睾丸炎、前立腺炎에걸리기쉬우니…
리베ー루는副作用이업고…
○各藥店에販賣함 一圓、三圓、五圓

大阪市南久太郞町 竹村梨劑所 振替大阪三〇番